

책 6만 4천부나 넘었는지 확인할 계획인 2004 서울국제도서전은 국내출판사 227개사, 해외출판사 68개사, 집자계간년집 22개사 및 방아도 집자사 45개사 등이 참여하며, 18만여 명의 관람객이 대니집드로써 실험관에 족로 있었다

## 다양한 특별전과..... 부대행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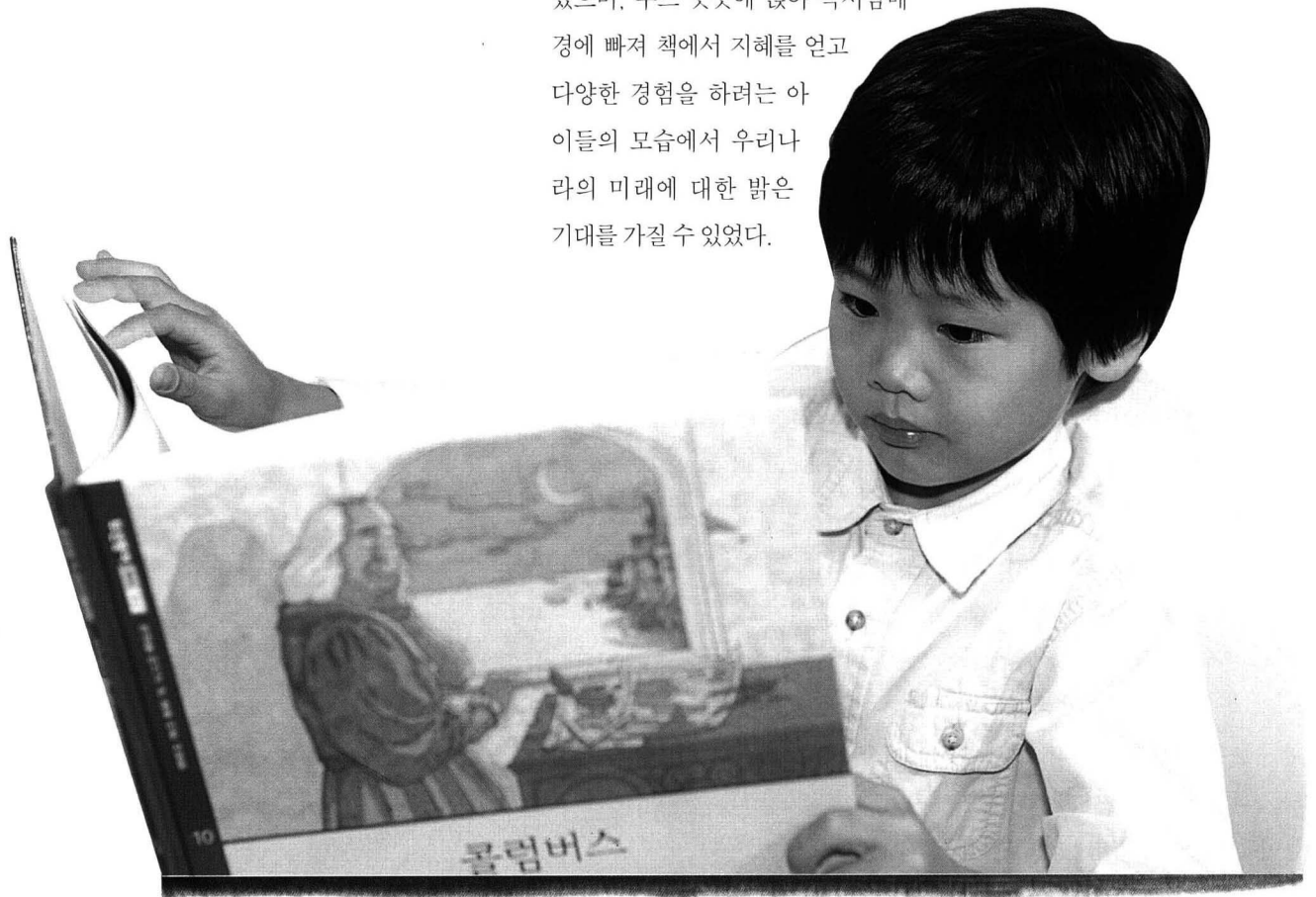
### 몰려든 관람객들.....

#### ※ 참가인원

전체 관람객의 수는 18만여 명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였으며, 이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저술·출판·도서관계를 비롯한 전문인들은 물론, 책을 사랑하는 많은 독자들이 꾸준히 전시장을 찾아 준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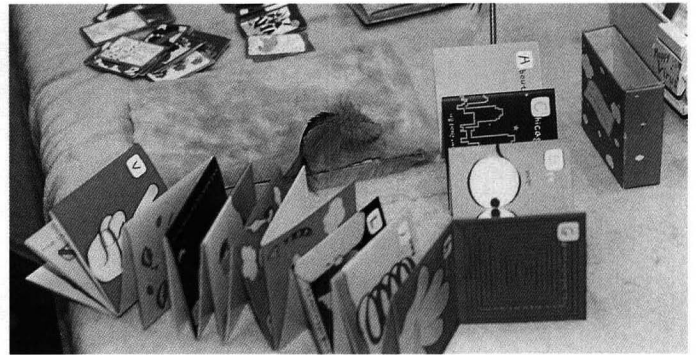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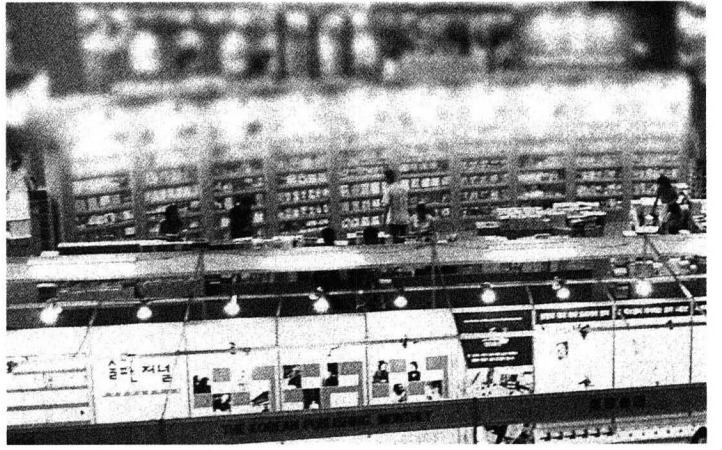
올해에는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해 참여 출판사의 수도 늘어났다. 특히 단행본 출판사의 참여도가 증가하여 일반 관람객의 숫자가 늘어났으며, 저자 사인회 등 개별 참가사들의 이벤트가 다양하게 개최되어 관람객들의 시선을 끌었다. 전자책산업전, 제1회 세계북아트전이 개최되기도 했다. 특히 북아트전에 관객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다양한 책의 세계를 향유하려는 독자들의 기대를 느낄 수 있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자녀들에게 좋은 책을 읽히려는 부모들의 참여도가 매우 높았으며, 부스 곳곳에 앉아 독서삼매경에 빠져 책에서 지혜를 얻고 다양한 경험을 하려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밝은 기대를 가질 수 있었다.





• 서울국제도서전 태평양관에서 전시된 세계금서특별전.  
• 태평양관 전경. • 제 1회 세계 북 아트전.



### ※ 저작권 상담 및 체결

한편 저작권 상담 및 계약현황은 국내관이 314건 상담에 67건 계약, 국제관이 1,428건 상담에 275건 계약으로 전년도(국내관 282건 상담에 51건 계약, 국제관 1,352건 상담에 223건 계약)에 비해 다소 늘었다.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을 비롯하여 독일출판사(로볼트출판사)가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태국, 대만출판사가 꾸준히 참가함으로써, 저작권 거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 ※ 다양한 볼거리 제공

주최측은 전시장을 찾은 독자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의미 있는 전시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 매년 다양한 형태의 특별전과 부대행사를 선보였는데, 올해에는 세계금서특별전, 2005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 홍보관, 블로나라가치상 수상작 특별전 등을 마련하였다. 특히 세계금서특별전은 금지되었던 책을 통해 한 시대의 역사와 사회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을 받았다. 또한 지난 3월 초 선정된 한국의 책 100권을 중심으로 프랑크푸르트도서전 및 주빈국 행사를 일반인에게 홍보했던 2005 프

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 홍보관도 많은 독자들의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전시장 내에 설치된 이벤트관에서는 매일 한 편의 영화를 상영하였는데, 원작이 된 도서를 함께 진열하여 문학과 영화의 연계성을 강조하였으며, 참가사의 소규모 세미나를 통해 관객들에게 자사 출판물을 직접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 전문인 세미나 다양화

2004 서울국제도서전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세미나로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도서관협회의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의 시범운동 경과와 향후 발전과제 모색에 관한 세미나', 출판유통진흥원의 '출판유통현대화사업세미나'는 출판 전문가 그룹의 호응을 얻었으며, '독일 문화계 인사 초청 강연회 및 대담'과 한국과 독일의 문학출판 관계자들의 토론시간이었던 '독일에서의 한국문학 세미나'는 한·독 출판교류 활성화에 시금석이 되었다. 또한 '호주 현대의 북아트'는 전공자 및 일반인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아동·교육 분야의 성장이라는 한국 출판계 및 세계 출판계의 경향을 반영하듯 올해 도서전에도 이 분야의 발전은 두드러졌다. 특히 올해에는 전시장을 인도 양홀까지 확대하여 그곳을 아동·교육 전문 전시장으로 조성하였는데, 이를 통해 참가사들은 자사의 특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었으며, 전시장 환경도 개선되어 관람객들의 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출판**

자료제공 · 서울국제도서전 조직위원회